

#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 인도자 지침서

쥬디스 피에르-오케슨  
(JUDITH PIERRE-OKERSON)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인도자 지침서

쥬디스 피에르-오케슨 (Judith Pierre-Okerson) 지음.

©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그자료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용을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의 문구가 그 자료에 들어가야함: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인도자 지침서 에서 복사함 ©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필요한 자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복사할 수 없음.

모든 한글 성경 인용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표준새번역 성경을 대한 성서 공회 기독교 사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경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 목차



서론		5
첫째 모임:	<b>선교연회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b> (제 1 - 3 장)	7
둘째 모임:	<b>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b> (제 4장)	13
셋째 모임:	<b>두 가지 다른 상황과 공통된 역사:</b> <b>아팔래치아 레드 버드와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b> (제 5장과 6장)	18
넷째 모임:	<b>언어 연회들 사이의 구분:</b> <b>중앙 지역총회와 선교연회들</b> (제 7 장)	25
부록 A:	<b>언약</b>	31
부록 B:	<b>알래스카의 원주민 게임들</b>	32
부록 C:	<b>2014년 5월 다섯 지역총회에 보내는</b> <b>지도자들의 공개 서한</b>	33
부록 D:	<b>옥수수 껍질 인형을 만드는 법</b>	37
부록 E:	<b>여선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연회 내의 선교기관들</b>	40
부록 F:	<b>노래들</b>	42
저자 소개		43

# 서문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연회를 한 책에서 다룬다는 것은 벅찬 일이다. 세 연회들은 미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섬기고 있다.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는 약 586,000 평방마일의 땅에 걸쳐있다.<sup>1</sup> 레드 버드(Red Bird) 선교연회는 아팔래치아 산맥 깊숙히 동남부 켄터키에 있다.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는 오클라호마, 캔사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회중들을 포함한다.

이 지역들이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양하지만 그들은 연합감리교회와 공통된 역사를 나누고 있다. 이 인도자 지침서는 참가자들에게 선교연회들에 관한 총회의 다른 결정들을 살펴볼 기회를 줄 것이다. 참가자들이 그러한 결정들이 인종 분리가 아닌 진정한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첫번 모임에서 참가자들에게 선교연회를 이해하도록 안내할 것이고, 네번째 모임에서는 선교연회들과 함께 한 여선교회의 사역들을 돌아보는 한 편 이전의 언어에 근거한 혹은/그리고 인종에 근거한 연회들과 교회의 관계를 되돌아 보게 될 것이다.

세 선교연회의 주민들은 비록 다른 정도이기는 하지만 지난 날의 그리고 현재의 그들의 땅을 착취한 것에 기인한 가난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을 각 선교연회의 자연적인 세계로 인도하며 동시에 각 연회가 가지는 교회와의 관계와 독특한 역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한 모임들은 참가자들에게 아팔래치아 산맥들과 알래스카에 사는 주민들이나 오클라호마에 사는 원주민들의 자연 세계에 영향을 준 환경적 부정의를 생각하도록 도전할 것이다. 그러한 모임들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대변하는 일에 교회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입장을 취하라고 초청할 것이다. 이 인도자 지침서는 기도와 게임들과 음악들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선교연회의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자는 이 자료를 채택해서 여선교회 모임 같은 프로그램에 맞도록 필요한 대로 바꿀 수 있다.

## 매번 모임에 필요한 자료들

다음 자료들은 모든 모임을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성경책
- 페인터들이 쓰는 테이프
- 컴퓨터, 인터넷 연결이 되는 것을 권장
- 공작용 종이
- 껌도 용지
- 마커들
- 신문용지사이즈 종이
- 인덱스 카드
- 선교연회 디비디(DVD), 기계와 텔레비 또는 프로젝터같은 상영 기구
- 참가자들의 일기 기록 공책
- 펜/연필들

## 더 짧은 모임이나 한 번 모임으로 하고 싶은 경우

지역 교회에서 30 - 45분짜리 프로그램을 위해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개회 예배로 시작한다.
- 아모스의 구절에 대한 짧은 묵상을 인도한다 (미리 사람을 정할 것).
- 세 선교 연회 중에 초점을 맞출 한 곳을 정한다.
- 지역 주민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연회가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선교를 하는 지를 나눈다.
- 여선교회가 그 연회와 동역하는 방법들을 나눈다.
- 인도자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특정 연회를 위해 쓰여진 기도문과 교독문을 사용해서 마친다.

이 교재를 지방회 모임의 일부나 지역 교회 여선교회에서 한 번의 모임으로 인도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3시간에 인도할 수 있다:

- 특정 개인들에게 교재를 정해서 미리 읽게 한다.
- 아모스 본문에 대한 묵상을 포함해서 개회예배로 시작한다.
- 각 개인들이 지정받은 선교연회의 역사를 요약 발표하게 하고 각 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토론하게 한다.
- 중앙 지역총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해 준다.
- 중앙 지역총회와 선교연회들을 비교하는 토론을 참가자들이 하도록 인도한다.
- 선교연회들에 관한 디비디(DVD)를 보고 모임의 일부로 토론하고 볼 부분을 정한다.
- 여선교회가 선교연회들과 동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기도나 마치는 교독문 중 하나를 골라서 마친다.

## 후주

---

1.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 2016년 5월 22일 접속, [www.alaskaumc.org](http://www.alaskaumc.org).

## 첫째 모임

# 선교연회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제 1-3 장)



### 배경

이 모임은 선교연회들과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상호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교회가 선교연회들과 가진 역사적 관계를 재평가해보자는 초청이다. 이것은 동시에 연합감리교회 가족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수년에 걸쳐 지속된 부정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거기에 참여한 것을 되돌아 보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의 땅에서 저자 제이 앤 크레이그(J. Ann Craig)가 주교재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오늘날까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침략과 문화적인 말살”을 초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연회들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난의 원인인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아간 땅의 회복을 대변해 달라는 요청이며 미국내의 원주민 문화와 관련된 모든 획일화와 지나친 낭만주의를 없애는일에 목소리를 내 달라는 요청이다.

### 준비

- 첫번 모임 이전에 참가자들과 대화를 한다. 그들에게 첫 1-3장을 토론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초청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책과 개인 일기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여분의 일기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만약 일기장을 가져오지 않은 이들이 있으면 준비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할 것이다.)
- 등록처에 미리 알아봐서 혹시 참가자 중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방을 준비할 때 그의 필요에 맞춘다.
- 그 장소에서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 자료들을 모은다. 십자가 둘 곳, 성경책 둘 곳, 원주민의 종교적인 도구들, 바위, 건전지로 켤 수 있는 초, 찬송가, 장정 2016년판 등을 둘 곳을 생각해 둔다.
- 원주민들의 음악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이 그 장소에 들어올 때 컴퓨터나 씨디 플레이어(CD player)로 틀어줄 수 있도록 한다.
- “본문과의 시간: 1부”를 위해서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Mutuality in Mission)”에서 인용문들을 복사해서 준비한다.
- 첫번 모임에서 선교연회 디비디(DVD)를 틀어주고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다른 문화의 의식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는 특히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서 그것을 조롱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인도자들은 참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세 선교연회들 중의 하나 혹은 셋 다

와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현실에 신경을 써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도자는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인도자이지 선교연회의 지리, 역사, 문화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마음에 둔다..

## 시작 (20 분)

체로키 언어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인사한다: ᏍᎩᎨ, ᎠᎵᎵᎵᎵᎵ (소리나는대로 읽으면 “오시요, 우리헤리스디”가 된다)! 뜻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이다. 이 단어들을 모임 내내 어디에 보이도록 적어 놓아도 좋다.

## 모임 언약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모임에서 지킬 3-4가지 지침들로 이루어진 언약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부록 A에 있는 언약을 나눌수도 있다. 이 언약은 스테파니 히슨(Stephanie Hixon)과 토마스 포터(Thomas Porter)가 지은 선교학교 교재: *여정: 용서, 회복의 정의와 화해(The Journey: Forgiveness, Restorative Justice and Reconciliation)*에서 따온 것이다.

## 개회 예배

### 성경: 아모스 5:6 - 24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번역으로 이 본문을 조용히 읽으라고 권한다 (이 본문을 프로젝터로 보여주어도 좋다). 참가자들에게는 모든 네 번의 모임 동안 같은 성경구절이 사용될 것임을 알게한다.

## 묵상

참가자들에게 이 구절에서 얻은 통찰들이나 자신의 이해 등을 자기들의 묵상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두세명의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그 성경구절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도록 한다. 그들의 통찰을 듣되 촌평은 하지 않는다.

## 찬송

“사라남, 사라남,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 523장(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독문: 시편 31:1 - 4

인도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같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인도자: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다같이: 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 각자 소개 (15 분)

참가자들에게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제 1장에 나오는 다음 인용문을 읽으라고 한다:



독자들이 우리들의 21세기의 선교연회에 관한 이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연구를 읽으면서 독자들 자신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은 어디 출신인가?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이나 당신의 선조들에게 어떤 해악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왔는가? 당신이나 당신 가족 혹은 당신이 속한 더 큰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했는가?

공작용 종이나 일반 종이에 자기들의 대답을 적어 보라고 참가자들에게 권한다. 그들에게 대답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처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적으라고 말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대답을 전체 모임과 나누어 보라고 부탁한다. 나누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다 나누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각자의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그룹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오직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나누라고 해야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룹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의 답을 게시해 놓으라고 부탁한다. 만약 소그룹에서 나누었으면 쉬는 시간에 다른 그룹이 붙여 놓은 내용을 읽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적어 보라고 한다.

## 비디오(10 내지 15 분)

선교연회 디비디(DVD) 첫 단원을 본다. 사람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해설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탁한다.

1. 참가자들이 먼저 했던 활동을 유념하면서 현재 선교연회들과 그 전에 있던 리오 그란데 연회와 감리교회의 중앙 지역총회에 가해졌던 공통된 해악들을 지적하고 토론해보라고 한다.
2. 이 비디오에서 보여준 해악들 가운데 현재 선교연회 사람들에게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해악으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었는가?

## 본문과의 시간: 제 1부

### 최대한의 환대가 우리를 선교와 사역의 상호주의로 밀고 간다. (20 분)

선교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8:19-20에서 발견되며 대사명(Great Commission)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초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변화시키라는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대사명에 대한 순종은 상실되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대한 순종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도 상실되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기독교인들은 “가서...가르치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동안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선교에 대한 접근이 하나님의 선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대리인들과의 동역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2001년에 출판된 자신의 책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21세기를 위한 신학적인 원리(Mutuality in Mission: A Theological Principle for the 21st Century)*에서 공저자들인 글로리 이 달마라지(Glory E. Dharmaraj)와 제이콥 에스 달마라지(Jacob S. Dharmaraj)는 그 상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호주의는 동역자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진정한 인정을 하게되면, 장기간의 관계에 헌신하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키워주고, 지속적인 만남을 장려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격려한다. 한 상대방이 특히 취약하게 되면 대화를 지속하도록 헌신하고 관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두 동역자들이 자기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들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더 강화시킨다.<sup>2</sup>

제 2 장 “바울은 국내선교사였다”의 요약을 참가자들에게 준다. 그들에게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서 따온 인용문을 자신들이 토론할 때 지침으로 삼을 것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한다.

### 토론을 위한 질문들

1. 어떤 점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서 따온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상호주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2.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유럽 기독교인들의 미국 대륙에서의 선교 여행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 그리고/혹은 차이점을 보이는가?
3.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인들, 특히 루디아는 달마라지 부부(Dharmarajs)가 묘사하는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 휴식(10 분)

### 본문과의 시간: 제 2부

#### 선교연회들과 연합감리교회 장정 (20 MINUTES)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선교연회들의 기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년판 585항에 나와있다.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다. 그 결정들은 *장정과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The Book of Resolut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 기록된다. 총회의 권한은 그 두 문건의 내용을 “인준,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다.<sup>3</sup> *결의문집*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로 자기 믿음을 삶에서 드러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과 권면을 제시한다. 장정은 어떻게 연결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그 교인들과 상호관계를 해야되는 지를 정하고 교회들의 공통의 선교와 사역의 지침을 제시한다. 일단 총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교단은 그 내용대로 적고 다음 4년 동안은 그대로 살아야한다.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연결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 미래의 총회에 참여적인 역할을 하라고 격려하라. 어떤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린 결정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선교적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아닌 것이라고 믿을 때는 그런 결정에 도전하도록 권면한다.

이 모임을 위해서는:

- 참가자들을 6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그룹들로 나눈다.
- 제 3 장 ”선교와 선교연회. 유동성을 보여주는 역사”의 요약을 나누어준다.
- 그룹이 읽고 토론할 주요 본문으로 3장에서 뽑은 장정의 9585 - 588항을 지정해 준다.

## 토의할 질문들

1. 당신은 이 문단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2. 그 문단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3. 그 문단에서 어떤 가부장적인 그리고/혹은 제한적인 언어를 찾아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4. 당신이라면 이 문장들을 어떻게 고쳐보겠습니까? (만약 어떤 가부장적인 그리고/혹은 제한적인 언어를 찾아냈다면.)

## 둘째 모임을 위한 준비 (5 분)

제 4장과 *리스판스* 잡지 2012년 11월호에 나오는 “눔(Nome)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이라는 글을 읽어오게 한다. 그 글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 둘 혹은 세 자원자들에게 다음 장의 핵심 요점을 요약해 오라고 부탁하고 다시 만날 때 그것을 전체 그룹과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 마치는 예배 (5 분)

### 교독문

“위대한 영에게 드리는 기도”에서 차용. 이것은 라코타 수(Lakota Sioux) 추장 옐로우 라크(Yellow Lark)가 1887년에 번역한 것이다.<sup>4</sup>

**왼쪽:** 오 위대한 영이여 내가 그 목소리를 바람 속에서 듣고 그 숨결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오른쪽:** 나를 들으소서. 나는 당신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

**왼쪽:**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속에 걷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눈은 언제나 붉고 자주빛의 석양을 보게 하소서.

**오른쪽:** 내 손이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내 귀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게 하소서.

**왼쪽:**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내가 당신이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일들을 이해하게 하소서

**오른쪽:**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차분하고 강하게 하소서.

**왼쪽:** 나로 하여금 순수한 생각을 찾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도울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하게 하소서.

**오른쪽:**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돕되 그와 같이 되어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왼쪽:** 내가 내 형제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힘을 찾지 않고 나의 가장 큰 적,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 힘을 갖게 하소서.

**오른쪽:** 내가 언제나 당신에게 깨끗한 손과 정직한 눈을 가지고 갈 준비가 되게 하소서.

다같이: 그래서 내 삶이 쇠할 때, 석양이 지듯이, 내 영혼이 당신께 부끄러움 없이 가게 하소서. 아멘!

인도자: VOLEFT. (소리나는대로 읽으면 “도나다고비”이고 의미는 “모든 이여 잘가요”하는 의미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 체로키 언어다.)<sup>5</sup>

다같이: VUUA&T. (소리나는대로 읽으면 “도나다그보이”이고 의미는 “당신도 잘가요”라는 뜻이다.)

## 후주

---

1. 옴니글롯(Omniglot): 문자 체계와 언어에 관한 온라인 백과사전. 2016년 5월 22일 접속, [www.omniglot.com/language/phrases/ Cherokee.php](http://www.omniglot.com/language/phrases/ Cherokee.php).
2. 글로리 이(Glory E.)와 제이콥 에스 달마지(Jacob S. Dharmaraj) 공저,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21세기를 위한 신학적 원리* (뉴욕: 연합감리교회 총회 세계 선교부, 2001), 39쪽.
3. 러셀 이 리체이(Russell E. Richey), 케네스 이 로(Kenneth E. Rowe), 진 밀러 슈미스(Jean Miller Schmidt) 공저, *미 감리교회: 간략한 역사*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2012).
4. “위대한 영에게 드리는 기도,” 추장 옐로우 라크(Chief Yellow Lark) 역, 원주민들의 기도들. 2016년 5월 15일 접속, <http://nativeamerican.lostsoulsgenealogy.com/prayers.htm>.
5. 옴니글롯(Omniglot): 문자 체계와 언어에 관한 온라인 백과사전.

## 둘째 모임

.....

#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

(제 4 장)



### 배경

러시안 탐험대가 알래스카에 18세기 중반에 도착했을 때 약80,000명의 원주민이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다. 지금은 알래스카 원주민은 알래스카 전체 인구768,335 명의 약 15%를 차지한다.<sup>1</sup>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229 개의 알래스카 마을과 5개의 인정받지 못하는 트린깃(Tlingit) 알래스카 인디언 부족이 있다.<sup>2</sup> 금을 찾는다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알래스카에 몰려들었고 그들과 함께 잠재적인 경제 성장과 농업의 확대가 있었다. 대규모 이민과 광산으로 초래된 파괴적인 세력들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래스카 원주민 그룹들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약간은 다른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는 알래스카 원주민들 사이에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다. 2016년 6월 현재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는 아주 적은 수의 원주민을 교인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알래스카 연회가 연합감리교회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전신 교단들이 가진 역사는 두 다른 선교연회와도 역시 다르다.

### 준비

- 참가자들이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부록 B 참조)
- 선교연회 디비디(DVD) 둘째 부분을 틀어줄 준비를 한다.
- 참가자들이 들어 올 때 컴퓨터나 씨디 플레이어로 알래스카 원주민 음악을 틀어줄 준비를 한다.

### 환영

참가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해 준다.

### 개회예배 (15 분)

성경: 아모스 5:6 - 24

### 묵상

참가자들에게 아모스 5:6-24을 다시 읽고 11절에 주목하라고 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죄악들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고칠 기회를 찾으라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제 4 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자기들의 대답을 각자 묵상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 미국 정부가 원주민들 일반, 특히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 지를 배웠거나 알게된 계기들.
- 그런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원주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 그런 행동 혹은/그리고 무대책이 어떻게 가난의 악순환에 기여하였는지.

## 찬양

도카히 아도차히(Dawk'yahee ahdawtsahee) (예수, 하나님의 아들),” *글로벌 프레이즈 1권*, 19장 (부록 F 참조). (다른 찬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독문

시편 15편에서 변형함.

인도자: 오 주님,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다같이: 겸손히 행하며, 올바른 일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정직을 말하는 자입니다.**

인도자: 오 주님,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겠습니까?

**다같이: 험로 남을 모략하지 않고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도자: 오 주님,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다같이: 그의 눈은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고 손해를 보아도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며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자를 대항하여 뇌물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다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간단한 복습 (5 분)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나누게 한다:

- 처음 모임에서 얻은 새로운 깨달음.
- 처음 모임에서 생긴 질문들.

## 본문과의 시간: 제 1부 (30분)

자원한 이들에게 자신들이 읽은 것을 요약하고 제 4 장과 *리스판스(response)* 잡지에 나온 글, “놈(Nome)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의 중요한 요점들을 지적하라고 부탁한다.

모임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제 4 장을 살펴보면서 전체그룹에서 자기들이 들은 것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찾은 것이 있으면 자기 그룹에서 나누라고 한다. 그룹에서 서기와 발표자를 정하게 한다. 그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큰 종이에 적게 한다. 그 사이에 인도자는 방을 돌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토론을 주도하는 지를 살핀다.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다 되기 10분 전에 알려주어서 그들이 다 자기 답을 적고 휴식 시간 전에 나눌 수 있게 해준다.

## 토론한 질문들

제 4 장 처음과 **리스판스(response)** 잡지에 나온 글, “놈(Nome)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의 정보에 기초해서 참가자들은 다음 질문들을 토론한다:

1. 금을 쫓아온 이들과 다른 광산업은 알래스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환경 파괴는 오늘날 알래스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21세기의 연합감리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보상으로 이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휴식 (10 분)

###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에 대한 개관 (10분)

원주민 게임은 원주민 문화의 나눔, 협동하는 공동사역 장려, 근면, 이웃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 등의 가치를 채워준다. 유픽 족(Yupik)과 알류산 부족(Aleut tribes)들이 하는 몇 가지 게임들이 이 모임을 위해 선정되었다. 이러한 게임들을 만든 이들은 그런 특별한 부족들이지만 그 가치는 다른 원주민 부족들이라도 여러 다른 형태로 논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B에 나열된 목록 중에서 하나나 혹은 둘을 골라서 참가자들이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를 맛보게 한다. 다른 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더 많은 게임들이 알래스카 원주민 지식 나눔(Alaska Native Knowledge Network)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비디오 (15 분)

선교연회 디비디(DVD) 두 번째 부분을 보고 다음 질문들을 묵상한다.

1. 브라우 목사(Rev. Browe)의 말,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왔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마태복음 28:19-20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비추어 토론해 보라.
2. 이 비디오 마지막에 해설자가 이렇게 말한다: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는 교회 안과 밖...필요한 것이 있는 공동체의 넓게 열린 공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놈(Nome) 커뮤니티 센터와 에이케이 아동과 가족(AK Child & Family)은 그 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 본문과의 시간: 제 2 부 (35분)

주 교재 부록 A에 있는 알래스카 연회 교단 합병 도표를 사용해서 1940년부터 지금까지의 알래스카 연회의 변화된 지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주 교재 제 4 장에 나오는 “알래스카 연회인가 혹은 선교 지방인가?” 하는 부분에서 발견되는 2016년 총회에 제출된 청원 번호 60529-MH-9415.4-G 를 다시 읽게 한다. 다음 배경 설명을 해 준다. 지난 2012-2016 4년 동안, 미국 내에서 선교연회를 없앨 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나아가 총회 세계 선교부와 중앙 연회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는 합동으로 2016년에 중앙 연회들안에 있는 임시 연회를 다루는 장정 580항을 개정하려는 청원이 있었다. 개정 이유에서 청원자들은 이렇게 적고 있다: “임시라는 말은 정규 연회로 가는 선교적 발전에 있어서의 임시적인 지위이다.”<sup>3</sup> 개정안은 임시연회의 수명을 최대 12년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선교연회의 지위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알래스카 연회의 지도자들은 미리 2016년 총회에 자신들의 선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가능한 대안으로 지원연회가 있는 선교 지방

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공식적인 기구에도 요청하였다.<sup>4</sup> 주목해야 될 점은 장정의 어느 곳에도 선교연회의 “비 영구적인 지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선교부와 중앙 연회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의 청원과 알래스카 지도자들이 낸 청원 둘 다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처음 안은 찬성 51대 반대 12, 기권 1로 위원회를 통과 되었다. 알래스카 청원은 입법 위원회를 통과 한 후 전체 총회에서 찬성 761표와 반대 21표로 통과 되었다.

## 소그룹 활동

참가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제 4장 끝에 나오는 증언들을 할당한다: 찰리 브라운(Charley Brower), 래리 헤이든(Larry Hayden) (“셸돈 잭슨[Sheldon Jackson]과 그의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를 보라), 톰 화이트 울프 파셋트(Thom White Wolf Fassett), 프랜 린치(Fran Lynch), 그리고 작고한 델라 신기그파그미 와이이(Della Singigpaghmi Waghiyi) 이야기.

## 토론할 질문들

각 증언에서 얻은 정보와 청원 번호60529-MH-9415.4-G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을 토론해 보라:

1. 당신은 어디서 알래스카 선교연회와 총회 사이에, 그리고 알래스카 선교연회와 더 큰 지역사회 사이에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의 기준에 부합되는 동역자 관계의 표시를 보았는가?
2. 당신은 알래스카 선교연회가 독립된 연회보다는 북서 연회의 선교 지방으로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를 설명해 보라.
3. 당신은 연합감리교회가 선교연회들을 더 이상 두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해 보라

## 셋째 모임을 위한 준비 (5 분)

제 5장과 6장을 읽도록 지정해 준다. “믿음을 노래한다(Singing the Faith)”라는 글을 **리스판스(response)** 잡지 2010년 12월 호에서 찾아 읽게 한다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 그리고 “2015년 5월 원주민 지도자들이 다섯 지역 총회에 보내는 공개서한”도 읽게 한다 (부록 C). 두 세 명의 자원자들에게 각 장과 각 글들에 있는 요점들을 요약해서 다시 만날 때 전체 그룹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 마치는 기도 (5 분)

참석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듣게한다. 유픽 족(Yupik) 언어로 알래스카 체로낙(Chefornak)에 있는 시에나(Siena) 가톨릭 교회의 세인트 캐서린(St. Catherine) 회중 성가대가 부른다. 이 주기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bkmAwYMuhQ](https://www.youtube.com/watch?v=_bkmAwYMuhQ).

아탐타 킬리트Atamtaa qilit 케인가텔느과qaingatelnguq

타마아텐tamaaten 탄킨나우르투그아르텐tanqignaurtug 아트텐 엘페트atren elpet

탐마아텐tamaaten 투투나우르투그tutnaurtuq 안게이우가우신angayugaucin,

타마아텐tamaaten 피우나우르투그 piyunaurtuq 피티르키우신 picirkiucin,

누남 카이그나미키리트nunam qaignani qilit 케인가텔느구시미툰qaingatelngucimitun.



네카멕 누우첵감테넥 Neqkamek nuuqekngamtenek 치키쿠트 에르테팍 cikirkut ernerpak,  
 칼리 cali 펠루그셀라기키 pellugcellaqiki 아시일느구프트 assiilnguput,  
 반쿠타 펠투게이라우심테툰 wangkuta pellugcilaucimcetun  
 칸게이우그세타아템테네크 cangayugcetaartemtenek,  
 칼리 cali 아시일느기르테텐그느아쿠말렘테니 assiilngircetengnaqumallemten  
 이아시일기르세타아르릴쿠키 assiilngircetaanrilluk,  
 타우가감아비우스쿠트 이끄룸 taugaam aviuskut iqlum 툰키이넥 tungiinek.  
**아멘.**<sup>5</sup>

## 후주

---

1. “알래스카 인구 2016,” 세계 인구 리뷰 2016년 5월 2일 접속, <http://worldpopulationreview.com/states/alaska-population>.
2.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들,” 알래스카 자연, 2016년 5월 22일 접속, [www.alaskannature.com/natives.htm](http://www.alaskannature.com/natives.htm).
3. “임시연회,” 청원 번호: 60278-CO-91580-G, *어드반스 데일리 크리스천 애드보케이트: 연합감리교회 총회 2016*, 제 1권, 2016년 5월, 457쪽.
4. “선교지방,” 청원번호: 60529-MH-9415.4-G 2016 *어드반스 데일리 크리스천 애드보케이트: 연합 감리교회 총회 2016*, 제 1권, 2016년 5월, 1156쪽..
5. “크리스투스 렉스(Christus Rex),” 2016년 5월 27일 접속, [www.christusrex.org/www1/pater/JPN-yupik-kuigpaq.html](http://www.christusrex.org/www1/pater/JPN-yupik-kuigpaq.html). Used with permission.

## 세째 모임

.....

# 두 가지 다른 상황과 공통된 역사: 아팔래치아 레드 버드와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

(제 5장과 6장)



### 준비

- 옥수수 줄기 인형(부록 D)을 만들 자료를 모은다.
- 선교연회 디비디(DVD) 세째 부분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 참가자들이 방에 들어올 때 틀어줄 전통 산악 지역의 노래들을 준비하고 컴퓨터나 시디 플레이어(CD player)를 준비한다.

### 배경

레드 버드(Red Bird)와 오클라호마 선교연회는 특권그룹들이 자기들의 땅을 착취하는 바람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역사를 가진다. 두 연회들은 주로 유럽계 미국인들이 다른 연회들의 경계선 안에 있는데 감독은 같지만 독립 연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은 레드 버드 선교연회가 현재 있는 지역에 한 때는 살고 있었다.

### 레드 버드 선교연회

레드 버드 선교연회는 동부 켄터키와 중앙 아팔래치아(종종 그 지역의 중심부로 알려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 교단들의 산물이다. 복음주의 교단의 선교부는 벨 카운티(Bell County)에서 예배 드리면서 1921년에 레드 버드 선교회를 시작했다가 1922년에 교육적 노력이 뒤따랐다.<sup>1</sup> 나중에는 복음주의 교단의 레드 버드 선교 지방이 되었다. 1925년에는 감리교회의 선교부가 계곡에 사는 이들 사이에서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헨더슨 정착지(Henderson Settlement)가 된 곳이다. 곧 형제 교회가 컴벌랜드 선교지방의 컴벌랜드 지역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켄터키 선교연회가 되었다. 복음주의 교회와 형제 교단이 1955년에 연합형제교단이 되었다. 그 후 1968년에 연합형제교단과 감리교회가 합쳐져서 연합감리교회가 되었고 현재의 레드 버드 선교연회가 생기게 되었다. 레드 버드 선교연회의 회원은 산악 마을들에 흩어져 있다. 동부

켄터키 지역은 산봉우리 제거 방식으로 알려진 석탄광산의 채굴방법때문에 극심한 가난으로 파괴된 곳이다. 레드 버드 선교연회는 계속해서 가난에 찌든 아팔래치아 가족들의 “교육, 건강, 복지, 공동체 지역 봉사,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 주택개량 등”<sup>2</sup> 필요를 채우는 일을 계속하면서 28개의 회중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고 있다.

###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 연회

오클라호마의 원래 주민들은 7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원 아파치 족(The Plains Apache), 아라파호 족(Arapaho), 카도 족(Caddo), 코만치 족(Comanche), 키오와 족(Kiowa), 오사게 족(Osage), 그리고 위치타 족(Wichita)들이다. 인디언 퇴거라는 미국 정책의 한 부분으로 미국 정부는 오클라호마를 “인디언 지경”으로 지정해 주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부족들이 오클라호마로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이주하였다. 원주민들이 오클라호마로 옮겨오는 물결에는 기독교 실천을 빠르게 전파시킨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844년 감리교회 총회는 알칸사와 미조리 연회 안에 인디언 선교연회를 만들었다. 감리교회가 노예 문제로 갈라진 이후에는 인디언 선교연회는 남감리교회에 속하기로 정하였는데 그것은 알칸사와 미조리 연회의 일부라는 이유 이외에도 인디언 선교연회가 “테네시와 미시시피 감리교회”와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sup>3</sup> 북감리교회는 1880년에 그 자체 인디언 선교회를 조직하였고 1889년에 선교연회의 지위를 주고 1892년에는 오클라호마 연회로 재편성하였다. 1972년에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열렸는데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OIMC))를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달고 연회 자격을 주었다: 1)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에서 안수받은 정회원 및 준회원 목사들은 오직 그 연회에서만 섬길 수 있다. 그리고 2) 그 대표들은 의사 결정 기구에서 발언권은 갖지만 투표권은 가질 수 없다. 1976년 총회는 그 두가지 불공정한 제한을 제거하였다. 오늘날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는 계속해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에서 뿐만 아니라 캔사스, 미조리, 그리고 텍사스에 걸쳐서 85개 교회들과 펠로우십(개척교회가 되기 전단계의 모임-역자 주)을 섬기고 있다. 그 중에 여러 회중들은 150년 이상 된 것들이다.

### 환영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 환영해 준다.

### 개회 예배 (10분)

성경: 아모스 5:6 - 24

### 묵상

참가자들에게 아모스 5:6 - 24을 읽으라고 한다. 12 - 13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침묵을 통해서 그들은 무고한 이들에게 자행되는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킨다. 참가자들이 본문 제 5장과 6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묵상일지 속에 교회가 원주민들과 혹은 아팔래치아 지역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부정의에 대해서 침묵한 경우들을 적어보라고 한다.

### 찬양

“웨 은 데 야호(We n'de ya ho) (체로키 아침 노래),” 태어난 모든 이들을 위해 3권 (부록 F). (다른 노래로 대치할 수 있다) 다음의 유튜브 비디오를 듣고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지 들어보라: [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http://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

## 기도: 축토(CHOCTAW) 족의 영적 기도에서 차용함<sup>4</sup> (한목소리로)

오 위대한 영의 아버지, 하늘 위에 높이 앉아 계신이며, 나에게 내일의 지평선을 넘어 볼 비전을 주십시오. 또한 살아남기 위해 직면해야 될 그리고 닳아올 매일의 시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나의 조상들의 피와 눈물을 담은 길들과 그들의 자유를 묶었던 사슬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으로서 우리들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신뢰를 확보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발이 나의 부족간 연결을 끊어 놓았던 이들에 대한 용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연결을 다시 한 번 이어갈 수 있게 도우소서. 당신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이 영적 기도의 의미를 짊어 넣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 간략한 복습 (10 분)

참가자들에게 다음을 나누게 한다:

- 둘째 모임에서 얻은 새로운 통찰.
- 둘째 모임에서 떠오른 질문들.

## 아팔래치아 문화를 살펴보기 (10 분)

전통적인 아팔래치아 문화는 대부분 가족이나 교회들이 전통 예술, 공예, 음악, 음식, 그리고 관습 등을 전해 주면서 보존되어 왔다. 많은 전통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여기서 자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그런 전통에서 멀리함으로써 “시골뜨기, 산골사람 냄새”를 가진 이 지역 주민이라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젊은 이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잊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sup>5</sup>

## 활동

**리스판스(response)** 잡지에 있는 글 “믿음을 노래함”을 읽게한다. 그 글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 그리고 다음 활동 중의 하나를 고른다:

1. 옥수수 껍질 인형을 만든다. (만약 이 활동을 고르면 참가자들이 마지막 모임이 끝나기 전에 이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준다.) (부록 D를 참조) 옥수수 껍질 인형은 300년이 된 전통인데 아팔래치아 사람들에게 미원주민들이 전해준 것이다. 이 인형들은 잘 알려진 대중 예술의 한 형태이다.
2. 아팔래치안 악기들의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하나나 두 개 정도 틀어준다. 예를 들면 현악기인 덜시머(dulcimers), 바이올린같은 피들(fiddles) 타악기로 쓰이는 빨래판(washboard), 수저(spoons), 주전자(jugs), 그리고 현악기인 반조(banjoes)가 있다. 덜시머를 연주하는 유튜브 비디오는 여기서 본다 [www.youtube.com/watch?v=f8nnPrGSUBs](http://www.youtube.com/watch?v=f8nnPrGSUBs). 아팔래치아 악기에 관한 비디오는 많아서 고를 수가 있다. 그것을 모임에서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필요한 허락을 받도록 한다.

## 석탄과 기후 (10 분)

“아팔래치아 산 봉우리 제거”라는 비디오를 본다 [www.youtube.com/watch?v=aiSzOiGFa-0](http://www.youtube.com/watch?v=aiSzOiGFa-0) (4:27분).

1.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웃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을 쓰는지 아닌 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 맵(Google Maps)에서 우편 번호를 쳐 보라고 한다.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모임에 오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고 한다: <http://ilovemountains.org>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알고 오라고 숙제를 준다. 미리 부탁한 경우에는 그들이 발견한 내용들을 모임할 때 바로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학

교 교장에게 무선 인터넷이 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지를 묻고 그 비디오를 본 다음에 그 활동을 숙제로 준다. 이 경우에는 나눔은 다음 모임 때 하면 된다.

2. 아팔래치아 지역의 환경 파괴의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

## 본문과의 시간 1부 (20 분)

### 전체 모임에서의 복습

- 자원하는 참가자에게 제 5 장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부탁한다.
-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으며 나누거나 토론하라고 초청한다.

### 소그룹 토론

모임을 네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세 개의 짧은 인물들에 관한 글을 각 그룹에 정해준다 (베티 레찌히(Betty Letzig), “선교연회가 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 나오는 사람, 메릴린 오스본(Marilyn Osbourne), 그리고 팔레이 스튜어트(Farley Stuart). 주의: 두 그룹이 베티 레찌히(Betty Letzig)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

#### 베티 레찌히(Betty Letzig) (그룹 1 과 2)

레찌히(Letzig)는 이렇게 말했다: “레드 버드 선교연회의 운명은 복음주의 연합교단(EUB)과 감리교회(MEC)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백척간두에 달렸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그 장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그리고 특히 레드 버드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한 그룹은 왜 그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아팔래치아 사람들과의 선교가 다음 총회 때 선교연회를 그 만두고 그 교회들과 선교를 주변의 연회와 지방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를 주장해보고 다른 그룹은 연합감리교회의 선교가 만약 레드 버드 선교연회가 더 이상 아팔래치아 산악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보라고 부탁한다.

#### 메릴린 오스본(Marilyn Osbourne) (그룹 3)

이 교재를 쓴 크레이그(Craig)와의 대화에서 오스본(Osbourne)은 레드 버드 선교연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깊은 인간관계와 동역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진정으로 구현하였다.” 이 장에서 읽은 이야기들과 정보에 근거해서 레드 버드와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동역과 상호주의의 증거를 토론해 보고 레드 버드와 아팔래치아 지역 사회와의 동역과 상호주의의 증거를 토론해 보라.

#### 팔레이 스튜어트(Farley Stuart) (그룹 4)

스튜어트(Stuart)는 레드 버드 선교연회를 묘사하면서 “미국 내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노력 중 가장 포괄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합감리교회 전체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말로 마치고 있다. 당신의 연회가 레드 버드 선교연회와 연약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라.

## 휴식 (10 분)

## 눈물의 길(Trail of Tears) (15 분)

눈물의 길(Trail of Tears) 혹은 인디언 퇴거법(Indian Removal Act)에 관한 비디오를 보라. 유튜브에는 눈물의 길(Trail of Tears)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비디오가 많이 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길다. 교실에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도록 주의한다 (다음에 열거된 비디오 저자들은 교실에서 그들의 비디오를 보여주는 허가를 이미 내 주었다). 만약 더 긴 비디오를 택하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비디오 전체를 미리 보고 시간이 되는대로 필요한 부분만 보여준다.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목록:** 이것은 단지 일부 목록일 뿐이다.

- “눈물의 길(Trail of Tears):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줄 알았다 (16.39 분)  
[www.youtube.com/watch?v=qalhDKLrWEQ](http://www.youtube.com/watch?v=qalhDKLrWEQ).
- “자니 캐쉬(Johnny Cash)가 전해주는 눈물의 길(Trail of Tears) , 제 1부” (7.40 분)  
[www.youtube.com/watch?v=qW8rIM2INN8](http://www.youtube.com/watch?v=qW8rIM2INN8).
- “자니 캐쉬(Johnny Cash)가 전해주는 눈물의 길(Trail of Tears) , 제 2부” (7.27 분)  
[www.youtube.com/watch?v=2RIJ\\_hFPDFE](http://www.youtube.com/watch?v=2RIJ_hFPDFE).

### 토론할 질문들

비디오 내용을 토론한 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우리들은 21세기의 연합감리교인들로서 어떻게 보상으로 이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본문과의 시간 2부 (25 분)

크레이그(Craig)는 이렇게 썼다. “. . . 가끔 교회는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다. 표면적으로는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는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는 그 연회(OIMC) 없이는 살 수 없다.”

참가자들을 6 그룹으로 나누어 제 6 장에 나오는 세 가지 증언들을 한 그룹에 하나씩 지정해 준다: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그룹 1 과 2), 아니타 필립스(Anita Phillips) (그룹 3 과 4), 그리고 잘리사 로스(Jalisa Ross) (그룹 5 와 6).

제 6 장과 2014년 원주민 지도자들의 편지(부록 C)에 근거해서 각 그룹은 자기들은 연합감리교회와 원주민들과의 선교가 다음 총회에서 선교연회를 주변 연회와 지방회로 통합시켜도 여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지를 토론해 보라. 반면에 다른 그룹들은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가 더 이상 “독립적인 연회”로서 원주민 지역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사역에 관한 결정들을 내리지 못한다면 왜 자기들은 미원주민에 대한 선교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각 그룹이 두 명을 뽑아서 한 명은 주요 논점들을 큰 종이 위에 적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 그룹과 논쟁할 수 있게 한다.

## 네 번째 모임 준비 (5 분)

지정된 읽을 내용: 제 7 장과 동시에 “그것은 마을 전체가 할 일”이라는 **리스판스(response)** 잡지 2012년 2월호에 실린 글과 “켄터키의 새로 엄마가 된 이들을 위한 도움”이라는 **리스판스(response)** 잡지 2014년 12월호에 실린 글.<sup>6</sup> 두 글들은 다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y-conferences).

두 세 자원 봉사자들에게 그 장과 글들의 요점을 정리하고 전체 그룹이 다시 모일 때 발표하라고 한다. 또한 세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각각 2분 이내로 폐회 예배 동안에 자신들의 성경말씀에 대한 묵상을 요약해서 묵상하라고 한다.

## 비디오 (15 분)

선교연회 디비디(DVD) 세째 부분을 보고 다음의 질문들을 묵상해 본다.

1. 릴라(Lilla)는 말했다: “레드 버드 선교연회에서 사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회의 결핍은 풍성한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비디오 부분에서나 혹은 본문에서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당신은 찾았는가?
2. 삶의 도전들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것을 내부 보다는 밖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회로 바꾼 시간에 대해서 한 일본 정도 묵상해 본다. 어떻게 그 구체적인 상황이 당신에게 삶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게 도와 주었는가?

## 폐회 예배 (5 분)

아팔래치아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치는 기도를 한다.

### 마치는 기도: 산들을 위한 기도<sup>7</sup>

메리 제인 히트(Mary Jane Hitt-웨스트 버지니아 원주민) 지음

오 신의 영이여,  
바람과 물의 영이여,  
산과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의 영광이여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세상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로운 선물들과  
우리가 자격없이 받은 매일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자기만족과  
우리의 시야가 짧았음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산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과  
산들과 그 안에서 사는 이들과  
산들과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하사  
강들이 손뻑치며 기뻐하고  
산들이 기뻐 함께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 후주

---

1. “레드 버드 선교연회 기록 안내,” 베레아(Berea) 대학, 2016년 8월 4일 접속, <http://community.berea.edu/hutchinslibrary/specialcollections/saa44.asp>.
2. 레드 버드 선교연회, 2016년 8월 4일 접속, [www.redbirdconference.org/index.php](http://www.redbirdconference.org/index.php).
3. 태쉬 스미스(Tash Smith), “오클라호마 감리교회의 인디언 뿌리: ‘우리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같다,’” 총회 역사 보존 위원회, 2016년 8월 3일 접속, <http://archives.gcah.org/xmlui/bitstream/handle/10516/3045/Methodist-History-2012-01-Smith.pdf?sequence=1>.
4. 재클린 윌리엄스 리피(Jacqueline Williams Rippy), “족토(Choctaw)족의 영적 기도,” 2016년 5월 25일 접속, [www.jayepurplewolf.com/PHOENIX/choctawspiritualprayer.htm](http://www.jayepurplewolf.com/PHOENIX/choctawspiritualprayer.htm).
5. “아팔래치아의 문화,” 북미선교 위원회, 2016년 6월 7일 접속, [www.namb.net/send-relief/arm/appalachian-culture](http://www.namb.net/send-relief/arm/appalachian-culture).
6. 안네트 스펜스(Annette Spence), “켄터키에서 새로 엄마가 된 이들을 위한 도움,” *리스판스(response)*, 2014년 12월, [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help-for-new-moms-in-kentucky](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help-for-new-moms-in-kentucky).
7. 메리 제인 히트(Mary Jane Hitt), “산들을 위한 기도,” ILoveMountains.org, 2016년 5월 5일 접속, <http://ilovemountains.org/prayers/94>.



## 넷째 모임

.....

# 언어 연회들 사이의 구분: 중앙 지역총회와 선교연회들

(제 7 장)



### 준비

- 헌신예배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은다: 인덱스 카드 (한 사람당 3장), 펜/연필/색필기구들, 그리고 바구니.
- 선교연회 디비디(DVD) 네 째 부분을 틀 준비를 해 놓는다.

### 배경

중앙 지역총회는 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총회로서 1939년부터 196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은 감리교회의 (남북) “통합”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그 전에 노예제도 문제로 분리되었던 교회의 통합. 이 통합은 지역에 기반을 둔 다섯 개의 지역총회를 만들어 냈는데 중앙 지역총회만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흑인들의 연회들로 구성되었다. 미국 감리교회의 초기 역사부터 회중들은 언어와 인종에 따라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별도의 언어 연회들은 가장 최근의 독립된 언어 연회인 리오 그란데 연회 때까지 계속해서 미국 감리교회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2014년의 텍사스와 뉴 멕시코 연회로 흡수되면서 해체되었다.

선교연회와 언어 혹은 인종에 기반을 둔 연회들, 그리고 중앙 지역총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모든 세개의 지체들이 인종차별과 경제적인 부정의 물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같은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 안된다.

언어 연회들은 같은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돕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오늘날 교단에 속한 소수 인종 교회들도 같은 이유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약 20개 정도의 알려진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바로 같은 인종에 속하고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목회자가 섬기고 있다. 인종적인 교회들처럼 언어 연회도 회중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만들어 지거나 혹은 그런 결정이 그런 연회의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리오 그란데 연회는 히스패틱/라티노 교회들에게 백인 연회들과 합치든지 아니면 독립된 개체로 남든지 할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그들은 언어 연회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중앙 지역총회는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의 통합때 백인 교회들을 달래는 타협조건으로 모든 흑인 교회들에게 강요되었다. 흑인 교회들은 중앙 지역총회를 만드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백인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타결을 볼 때 총회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이것이 *미국 감리교회: 간략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아프리카 후손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종적으로 분리된 중앙 지역총회는 특히 모멸적인 실망이었다... 그것은 시작부터 그 생명을 끝내자는 운동과 함께 시작했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감리교회의 포괄성을 온전히 드러내자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오직 1968년이 되어서야 복음주의 형제 교단과의 통합으로 그 인종적으로 격리된 중앙 지역총회가 폐지되었다.

리오 그란데 연회의 전신과 현재의 세계의 선교연회들은 비록 역사와 언어와 어느 정도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들을 섬기지만 중앙 지역총회와는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그런 연회들은 차라리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의 사회정의의 역사적이고 선교적인 사역의 일부였다. 선교연회들의 존재는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최대한의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해준다. 그들의 존재는 실제로 감리교회의 중앙 지역총회와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개회 예배 (10 분)

### 성경

다시 아모스 5:6 - 24을 읽는다.

### 묵상

참가자들에게 아모스를 다시 읽게한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무에 대해서 듣고 정직하고 공정하며 그러한 의무들을 적용하는 일이 진지하다고 듣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데 진실될 것을 권면받는다. 이러한 의무들 각각은 권면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논쟁과 더불어 강력하게 제시된다.

이번 모임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동화, 문화화, 그리고 원주민들의 억압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경험되었는 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또한 선교연회들과 가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그 전신 교단들의 고나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묵상 일지에 아모스에 대한 묵상을 적어보라고 한다 특히 연합감리교회가 여선교회를 포함하여 그 기관들을 통해서 선교연회와 관련된 일처리를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무를 실천하였는 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들을 적어 보라고 한다.

### 찬양

“웬 데야호(We n'de ya ho) (체로키의 아침 노래),” “태어난 모든 이들을 위해” 제 3권 (부록 F를 보라).

다음의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그 음악을 듣고 어떻게 부르는 지를 들어보라: [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http://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 (다른 노래로 대치할 수 있다.)

## 성경 봉독: 시편 56:8 - 13 (한목소리로)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족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서약한 그대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 간단한 복습 (15 분)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나누어 보라고 한다:

- 셋째 모임에서 새로 얻은 깨달음.
- 셋째 모임에서 생긴 질문.
- 아직 이전 모임들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석탄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도 나눈다.
-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전기 공급자들에게 어떻게 석탄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지 방법들을 토론해 보라.

## 본문과의 시간 (30 분)

자원하는 참가자에게 제 7장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이미 나눈 내용 이외에 다른 요점이 있으면 나누라고 한다.

모임을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6명이 넘지 않게 한다. 그룹에게는 서기와 발표자를 정하라고 한다. 그들이 대답들을 큰 종이에 적을 것이다. 그룹에게는 제 7장과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 토론 질문들

1. 크레이그(Craig)는 제 7장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교회들이 인원과 재정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과 주택용자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것 때문에 닥친 2008년의 경기 후퇴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당신은 1968년 통합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이 선 교연회로 조직이 되었었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제 7 장에 묘사된 이전 리오 그란데 선교연회의 역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선교연회의 상태에 대한 토론을 생각하면서 이전 리오 그란데 연회와 현재의 선교연회들 사이의 공통점들을 논의해 보라.
3. 주 교재의 7장 “리오 그란데 연회”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의 마지막에 바톤(Barton)은 교회가 리오 그란데 연회를 2006년 전에 통합하려고 했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당신은 연합감리교회가 리오 그란데 연회를 다른 연회들과 통합함으로써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다고 보는가? 토론해 보라.

## 비디오 (15 분)

선교연회 디비디(DVD)의 네째 부분을 보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

1. 총회의 “참회의 행동” 예배를 뒤돌아 볼때 어떤 행동이나 조치들이 취해지면 이런 예배들을 원주민들을 동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보상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할것인가?
2. 당신은 윌슨(Wilson) 목사의 말, “화해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휴식 (10 분)

### 선교연회와 함께 하는 여성교회 사역들

여성교회는 선교연회와 함께 한 세기가 넘게 선교해왔다. 이런 동역관계는 아직도 여성교회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 기관들 가운데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는 기구들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있다. (부록 E).

여성교회가 지원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국내 선교기관은 2개가 있고 레드 버드에는 3개가 있다. 알래스카에 있는 두 개의 기관은 에이케이 아동과 가정(AK Child & Family)이라고 앵커리지(Anchorage)에 있는 것과 نوم(Nome) 커뮤니티 센터라고 100년 넘게 존속해 오고 있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대처하려는 여성교회원들의 가슴에서 태어난” 것이 있다.<sup>2</sup>

레드 버드 선교회는 1919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전신 기관들 중의 하나인 복음주의 교단의 여성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레드 버드 진료소와 레드 버드 선교학교 등은 1921년부터 아팔래치아 산맥들 안에서 운영 되어 왔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헨더슨 정착촌(Henderson Settlement)과의 관계는 일찌기 1925년 최초단계 부터 디커니스 베르타 렐(Berta Rell)을 학교에 첫 선생님이로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계속해서 레드 버드 선교연회를 두 개의 국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한다: 헨더슨 정착촌(Henderson Settlement)과 레드 버드 선교회.

이런 국내 선교기관들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린이와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선교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자원봉사자로 시간을 들이고 있다.

## 활동 (20 분)

아래 활동들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만약 큰 모임이면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세 가지 활동을 다 한다.

- A. نوم(Nome) 커뮤니티 센터의 전 총무였던 데이비드 엘모어(David Elmore)가 نوم(Nome)에서의 커뮤니티 센터의 존재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면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비디오의 첫 12분을 본다: <https://vimeo.com/48205495>. 어떻게 نوم(Nome)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려고 했는 지를 토론해 보라.

B. 정해진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지정 **리스판스(response)** 잡지의 글들을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한 마을이 하는 사역(It Takes a Village)”은 텍사스 아말리요(Amarillo)에 있는 이전 리오 그란데 연회의 선교 기관으로 여선교회가 돕고 있는 웨슬리 커뮤니티 센터의 사역 이야기이고, “켄터키의 새로 엄마가 된 이들을 위한 도움(Help for New Moms in Kentucky)”은 여선교회가 테네시 주 내쉬빌에 있는 반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와 동역하면서 헨더슨 정착촌(Henderson Settlement)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원봉사의 사역이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교회가 이런 국내 선교기관들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라고 하면서 특히 미하우(MIHOW)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라고 한다.

C. 참가자들에게 제 4 장의 놈(Nome) 커뮤니티 센터, 제시 리 홈(Jesse Lee Home), 그리고 에이케이 아동과 가족(AK Child & Family)에 관한 본문을 읽고 또 5 장의 “지역 사회를 섬기는 레드 버드 선교연회,” “레드 버드 기독교 고등학교,” “레드 버드 지역사회 진료소와 지역봉사” 등을 읽고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 한다: 여선교회의 국내 선교기관들과의 동역이 어떻게 선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 헌신예배 (20 분)

헌신예배 전에 각 참가자에게 인덱스 카드를 세 장씩 주고 그들에게 2분 동안 무명으로 한 카드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을 하나 적으라고 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선교연회의 공동체 경계선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쓰게하고(공동체나 사회적인 입장에서), 세째 카드에는, 자기들이 둘째 카드에 적은 것을 적으라고 한다. 그 두 장의 카드에는 자기 이름을 적어도 좋다.

## 묵상

이미 부탁했던 분들에게 자기 묵상 일지를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 성경: 아모스 5:21 - 24 표준새번역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 찬양

“서로를 받아들이게 도우소서,”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 560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찬송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방 앞에 놓인 바구니 안에 용서를 구하는 무명의 카드를 넣는다.

### 용서를 구하는 기도

참가자들을 서서 원을 만들게 하고 한 사람씩 성령이 인도하시는대로 바구니를 높이 들고 한 문장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마친 때 전체 그룹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참가자들은 자기 두 장의 카드 중 하나는 간직하고 사람을 정해서 서로 두번째 카드를 교환한다. 그 두사람은 서로에게 변화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는 언약 파트너가 된다. (이런 교환을 위해 2분을 준다.)

### 마치는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합 감리교회찬송가 593 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후주

---

1. 러셀 이 리케이(Russell E. Richey), 켄네스 이 로우(Kenneth E. Rowe), 진 밀러 슈미트(Jean Miller Schmidt) 공저, *미국 감리교회: 간략한 역사*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2017), 177쪽.
2. “소개>About Us), 놈(Nome) 커뮤니티 센터, 2016년 5월 22일 접속, [www.nomecc.org/about-us.html](http://www.nomecc.org/about-us.html).

## 부록 A

.....

### 언약



여정: 용서, 회복의 정의와 화해에서 차용함.<sup>1</sup>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교재를 준비할 것을 다짐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한다.

- 정직하자—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마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 나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한다.
- 대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 요점만 간결하게 말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 본문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
- 나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목적은 본문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는 것임을 존중하자.
- 모든 차이점들을 다 존중한다.
- 새로운 견해나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연다—변화되기 위해서.

그룹에서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비밀을 보장한다.

### 후주

---

1. 스테파니 히슨(Stephanie Hixon), 톰 포터(Tom Porter) 공저, 여정: 용서, 회복의 정의와 화해. (뉴욕: 여성국, 총회 세계 선 교부, 연합감리교회, 2011), 16쪽.

## 부록 B .....

# 알래스카 원주민 게임들<sup>1</sup>



### 유픽(Yupik) 족의 게임들

#### 1. 알칼루튼(ANGKALUTN) (뺏기지마)

**재료:** 공 하나.

**참가자:** 3명 이상.

**방식:** 한 팀에서 서로 공 하나를 주고 받는 동안 반대 팀에게 뺏기면 안된다. 상대팀이 공을 빼앗으면 서로의 역할이 바뀐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특별히 경계선이나 금이 없다.

#### 2. 추키-추키(CHUKI-CHUKI)

**재료:** 없음.

**참가자:** 짝수의 사람들.

**방식:** 이것은 신체적인 움직임과 운율맞추기가 개입되는 게임이다. 한쪽의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하고 손을잡은 후 “추-키, 아막-오-축, 탈-레-오-축”하고 말한다. 동시에 잡은 손을 정해진 모양으로 움직인다. 처음 네 음절(추키, 추키)에서는 첫 사람이 자기 오른

쪽 팔을 앞으로 밀고 둘째 사람은 자기 왼쪽 팔을 뒤로 당기고 둘째 사람이 밀면 첫째 사람이 당기는 식으로 네 번을 한다. “엠마코축”할 때는 첫 팔이 서로 어긋나게 잡고, “탈레오축”할 때는 둘째 팔이 첫째 팔 위로 어긋나게 한다. 참가자들은 이것을 더 빨리 빨리 하면서 자기들의 언어 능력과 신체 움직임을 시험한다.

### 알류트(Aleut)족의 게임들

#### 1. 퀴오이츠(QUOITS) 게임 #2

**재료:** 녹색 천으로 된 깔개, 나무 반지들, 그리고 계산기.

**참가자:** 두 명 혹은 두 팀.

**방식:** 색줄무늬가 있는 녹색 천이 깔개이다 (전통적으로는 물개 가죽이 깔개로 사용됨). 참가자들이 나무 반지를 땅 바닥에 앉거나 쪼르려 앉은 상태에서 던져서 색줄무늬에 가장 가깝게 반지를 던진 사람이 이긴다

### 후주

1. “알래스카 원주민 게임들: 자료 안내,” ANKN, 2016년 5월 22일, [www.ankn.uaf.edu/Curriculum/NativeGames/resource.html](http://www.ankn.uaf.edu/Curriculum/NativeGames/resource.html). 허락을 받아 사용함.



## 부록 C .....

# 2014년 5월 다섯 지역총회에 보내는 미원주민 지도자들의 공개서한<sup>1</sup>



2014년 5월 22일

미국 연합감리교회 다섯개 국내 지역총회

연합감리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미원주민 종합 계획 총무(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ve American Comprehensive Plan)와 미원주민 국제 총회 회장(Chairperson of the Native American International Caucus)과 세계 선교부의 미원주민과 토착민 사역 총무(Executive Secretary of Native American and Indigenous Ministries of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인 우리들이 이 공개 서한을 우리 교단에 써서 미국내의 연합감리교회의 원주민 및 토착민의 사역과 삶에 중요한 관심을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200년에 걸쳐서 역사적인 감리교회가 함께 하고 증언하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원주민 부족 지역사회가 각각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놀랍고 재능있는 모습으로 존재해 온 것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원주민 부족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비극적인 “눈물의 길(Trails of Tears)”을 지나는 죽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많은 원주민 퇴거 기간 동안에도 감리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역사적인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을 하고자 하는 동안 종종 많은 장애들을 직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섬겨온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원주민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 둘 다를 간직하면서 원주민 공동체를 섬기려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행동하고 격려하는 수고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오콜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 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주민 교회와 모임과 사역에 가해진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부담을 목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역은 분명 원주민 지역사회에 있는 원주민 제자들과 그 사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차량 개스값도 안되는 현금만을 받으면서도 땀질해야 되는 강단을 헌신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평신도 지도자로,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들로 섬겨온 길을 지금도 발자취를 따라 섬기면서 자기들의 교회와 사역에 모든 돈과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존중하면서 자기들의 사역이 미래 세대에까지 살아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복음과 미원주민이 이 교단 안에 살아 남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성실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가는 제도적인 교회의 조직적인 압력에 환멸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압력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관계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기관은 누가 연합감리교회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재정 보고, 분담금, 그리고 매년말 보고서로 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연합감리교회 안에서의 존재는 우리가 우리 교단이 요구하는 통계수치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는 수세기에 걸쳐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되어온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미 원주민들에게 적합하고 그 발전에 맞는 문화적인 배경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은 원주민들을 쥐어 짜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증언의 효율성을 해치고 부패시키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이 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인 부정의는 전세계에 걸쳐서 토착민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고 분명 미국내에서의 원주민에 대한 위협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이 거룩한 땅을 맡기기에 적당하다고 본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은 부족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의 지속적인 존재에 우려를 가지듯이 연합감리교 안에서의 장기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합니다.

이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미국내에서의 우리의 숫자가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인식합니다. 미원주민으로서 우리들은 또한 우리 종족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지금이 연합감리교회가 우리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부족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의 원주민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동역관계를 잘 계발하고 지키면 연합 감리교회에 지혜와 재능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단은 2012년 총회에서 참회의 행동(Act of Repentance, AOR)을 통해서 원주민과 토착민들과의 치유 관계를 향해 일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원주민 공동체들에게 가해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해악과 정신적인 외상을 고치고자 하는 우리 교단의 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연회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개의 예배를 계획하는 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연회의 미원주민 사역 위원회(Committees on Native American Ministries, CONAMs)에서 원주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참회의 행동(AOR)과 관련해서나 미원주민 사역 일반과 관련해서 비상식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긴급한 일이라고 느껴서 다음의 내용들을 연합감리교회가 참회의 행동(AOR)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미원주민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1. 참회의 행동(AOR) 회개 예배는 연회의 첫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종점이 아니다. 감독과 캐비닛, 연회에서는 이 사역의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2. 어떤 참회의 행동(AOR) 도 각 연회 안에 있는 미원주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미원주민 사역 위원회(CONAMs), 원주민 모임들, 원주민 단체들과 부족 공동체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연회 안에 원주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충분하지 않다.) 연회 역사 보존 위원회는 이 문제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3. 원주민 사역 위원회가 이 사역을 연회를 위해서 계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악된 일이다. 회개의 어떤 행동도 원주민이 아닌 연회의 지도자들이 인도해야 한다. 거기에는 모임을 위한 재정 지원, 훈련, 풀판 등 모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4.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미원주민 사역을 “인종 및 민족 사역들”이라는 일반 우산 아래 두면서 한 사람, 대부분은 미원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연회의 원주민 사역 위원회(CONAMs)는 원주민 주일 헌금을 어떻게 나눌 지 결정하고, 원주민 사역 주일을 장려하고, 그리고 연회의 원주민 사역을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1654). 만약 원주민 사역 위원회(CONAMs)의 일이 “인종 및 민족 사역들” 혹은 “연결 테이블”(Connectional Table)이라는 우산 아래 두는 구조에서 한 사람에게 맡겨지면 어떻게 장정이 정한 일들이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미원주민이 이 사역에 개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미원주민 사역의 설립과 진행에 관련된 결정들을 미원주민들을 위해서 비원주민들이 내리는 아주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자신을 보게 된다.  
 나아가, 미원주민 주일 헌금을 소수인종 사역 혹은 연결 테이블 재정 결정이라는 더 넓은 항목을 통해서 주도록 합치는 것, 혹은 이 헌금이 연회의 참회의 행동(AOR)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장정의 목적과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많은 연회에서 이 헌금이 미원주민 사역의 예산 전체를 이루고 있다. 연회가 미원주민 주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실제 그것이 제공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연합감리교회 안팎에서 미원주민들을 긍정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5. 원주민들에게 대한 역사적 및 현대의 행동들에 참여하는 것은 각 연회에서 원주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런 계획에 포함될 것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연회와 교회 안에서 미원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알아내고 결의안 11654를 온전히 시행하는쪽으로 일할 것;
  - 교회들이 미원주민 주일을 위해 헌금하도록 장려할 것; 이런 식으로 각 연회 안에서 새로운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역을 강화할 재정이 있게 된다;
  - 미원주민 관련 자료들에 투자를 해서 지역 교회들을 위한 연회의 “대여 도서관”을 풍성하게 한다;
  - 연회 위원회와 사역팀에 미원주민 대표들을 포함시킨다;
  - 연회에서 한 지역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할 때 그 부동산이 미원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지 모든 가능성을 알아본다.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은 원주민 사역 위원회(CONAMs)에 임대하거나 다른 원주민 그룹들에게 맡겨서 그 건물의 판매 수익금을 기존의 혹은 새로운 원주민 사역이나 교회를 위해 지정하거나 그 건물의 등기를 다시 원주민들에게 해주는 것 등을 알아본다. 연회 원주민들이 이런 중요한 토론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6. 연회는 개체 교회들이 원주민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연회 안에서 그와 관련된 역사를 교육할 과정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연회 역사 보존 위원회는 이 일을 위한 지도력을 공급해야 한다. 대학이나 학교에서 봉

직하는 고문서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원주민 학과의 자료실에서 일하는 이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7. 연합감리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사람들에게 가진 희망을 존중하면서 미원주민 공동체들이 겪은 실제적이고 반복되는 정신적인 외상을 인정하고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편지와 제안들이 쓰는 사람들과 같은 영으로 받는 이들에게도 받아들여 지기를 기도한다 - 희망의 영.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회개의 운동이 본질상 단지 상징적인 것이고 어떤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는 계속 사라져 가서 최후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일부로서의 우리의 빛이 꺼지는 것이다.

이 편지에 언급된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문건인 아니타 필립스 목사(Rev. Anita Phillips)가 쓴 미원주민 전도와 제자화에 관한 연구(The Study on Native American Evangelism and Discipleship)가 2014년 가을에 출판 예정이다. 신시아 켄트 양(Ms. Cynthia Kent)은 연회와 지역총회 안에서 원주민 사역 위원회(CONAMs)의 조직과 대변 활동과 관련해서 자문을 제공해 준다. 또한 케본 커넬(Chebon Kernell) 목사는 감독들과 연회들이 회개의 행동(AOR)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어서 자문해 줄 수 있다. 참회의 행동(AOR)에 관련된 자료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진실된 축복을 빌면서,

*Anita Phillips*

*Cynthia Kent*

*Chebon Kernell*

## 후주

1. 아니타 필립스(Anita Phillips), 신시아 켄트(Cynthia Kent), 케본 커넬(Chebon Kernell) 공저 “미국내 연합 감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감독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2014년 5월 22일, [http://s3.amazonaws.com/Website\\_Properties/news-media/documents/open\\_letter-on\\_act-of-repentance.pdf](http://s3.amazonaws.com/Website_Properties/news-media/documents/open_letter-on_act-of-repentance.pdf).

## 부록 D .....

# 옥수수 껍질 인형 만드는 법<sup>1</sup>



### 재료들:

실 혹은 노




가위

따뜻한 물 한 사발

9-12 개의 녹색 옥수수 껍질\*

\*인형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옥수수 껍질은 마른 것은 안되고 녹색이어야 한다. 녹색 옥수수 껍질은 아무 공예점에서든지 다 살 수 있다. 아니면 옥수수 대에서 직접 벗겨서 사용해도 된다. 만약 마른 껍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껍질을 큰 따뜻한 물 사발에 담가서 잘 구부러지게 한 다음에 사용한다. 녹색 껍질을 사든지 아니면 싱싱한 것이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그럴 필요는 없다.

### 만드는 법

 <p>1. 네 개의 껍질을 가지고 그림처럼 가지런히 한다.</p>	 <p>2. 작은 실로 끝부분을 꼭 맨다</p>
 <p>3. 가위로 가장 자리를 다듬어 부드럽게 한다</p>	 <p>4. 뒤집은 다음에 긴 껍질들을 다듬은 부분 아래로 내린다.</p>

5. 머리를 만들기 위해 줄로 묶는다.”



6. 또 다른 입을 가져다가 편편하게 펴서 단단한 원통이 되도록 만든다.



7. 양쪽 끝을 실로 묶으면 팔이 된다.



8. 두 팔을 긴 앞사귀 목 바로 밑에 넣는다.



9. 허리를 만들기 위해 그림처럼 실로 묶는다.



10. 옥수수 잎을 팔과 윗몸통 주위에 엇갈리게 늘어뜨려 어깨를 만든다



11. 네다섯 입을 가져다가 허리 주변에 한 줄로 가지런히 맞추고 인형 치마를 만든다.



12. 줄로 묶는다.



13. 원한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다리도 만들 수 있다. 보이는 것처럼 가는 잎 조각으로 다리를 묶는다. 목과 허리에 줄을 가리기 위해 작은 입을 묶어서 인형을 완성한다. 작은 천조각으로 옷을 해 입힐 수 있다.



## 인형 장식

**전통적으로** 인디언 아이는 자기 문화에서 자기가 입는 것과 같은 옷을 인형에게 입힌다. 머리는 말총이나 동물 털로 만든다. 인형은 얼굴은 없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옥수수 잎 인형의 세네카 이야기(Seneca Story of the Corn Husk Doll)를 읽어보라. <http://www.nativetech.org/cornhusk/dollstry.html>.

그러나 참가자들은 원하는대로 인형을 장식할 수 있다. 작은 아이들은 색종이, 크레용, 마커 등을 가지고 장식하려고 할 것이다. 어른들은 종이 옷, 장신구, 얼굴 모습, 또는 다른 것들을 집에서 쓰는 풀을 가지고 붙일 수 있다. 큰 애들은 천이나 다른 옥수수 잎사귀를 가지고 혹은 여러 재료로 장식할 수 있다.

**얼굴** 눈, 귀, 코, 입 등은 크레용이나 마커로 그려도 된다. 단추 눈, 실 입, 여러 가지를 풀로 인형에 붙일 수 있다.

### 현대적인 장식 아이디어

**치마:** 옥수수 잎사귀 인형을 위해 새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 수 있다. 허리 부근을 감싸고 실이나 노끈 혹은 색실로 묶으면 된다. 치마는 마커나 크레용으로 미리 장식할 수 있다.

**색실:** 옷음 모양이나 귀모양으로 색실을 구부려서 옥수수 인형의 얼굴이나 원하는 장소에 풀로 붙인다.

**옥수수 입 물감들이기:** 색이 있는 피부나 옷을 옥수수 잎 인형에 입히려면 식용 물감에 그것을 담가두면 된다.

따뜻한 물 한 사발에 잎사귀를 30분 담가두고 원하는 색물감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밝은 갈색을 내려면 큰 사발에 커피나 차를 타서 담가두면 된다.

**신발:** 옥수수 잎 인형 발을 작은 사발에 담긴 아크릴성 페인트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리면 신발이 된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반복한다.

**작은 인형 옷을 이용한다:** 옥수수 잎 인형을 장식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금속세공, 단추, 금가루:** 그리고 다른 공작 재료들을 인형에 붙이면 장신구, 눈, 색있는 옷,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담뱃대 청소도구:** 옥수수 잎 인형 뒤에 집어 넣으면 세울 수 있다. 아니면 구부려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걸어들 수 있다.

**머리카락:** 다른 옥수수 잎이나 수염, 실, 노끈 등을 풀로 붙인다.

**수채화 물감:** 옥수수 잎에 잘 배서 인형에 깊고 진한 색을 더해준다.

**모자:** 플라스틱 병 마개로 만든다.

**아주 둥근 머리:** 옥수수 잎을 굴리는 대신 안에 몇 개의 솜덩어리를 넣으면 머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다. 먼저 장식한 후에 위에 있는 지시대로 몸에 붙이면 된다.

## 후주

1. “옥수수 잎 인형 만드는 법,” Snowwowl.com, 2016년 6월 29일 접속, [www.snowwowl.com/naartcornhuskdollPF.html](http://www.snowwowl.com/naartcornhuskdollPF.html).

## 부록 E .....

# 여선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연회들 안의 국내 선교 기관들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 <http://alaskaumc.org>

### 1. 에이 케이 아동과 가족(AK Child & Family)

4600 Abbott Road, Anchorage, AK 99507

총무 데니스 맥카빌(Denis McCarville), [dmccarville@akchild.org](mailto:dmccarville@akchild.org)

전화: 907-346-2101 - 팩스: 907-348-9230

[www.akchild.org](http://www.akchild.org)

**프로그램/선교:** 청소년 지도력 개발, 상담, 음식, 가족 봉사,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봉사, 여름 캠프

[www.akchild.org/for-families/what-we-do/community-based-treatment.html](http://www.akchild.org/for-families/what-we-do/community-based-treatment.html)

### 2. 노름(Nome) 커뮤니티 센터

P.O. Box 98, Nome, AK 99762

총무 론다 슈나이더(Rhonda Schneider), [rschneider@nomecc.org](mailto:rschneider@nomecc.org)

전화: 907-443-5259 - 팩스: 907-443-2990

[www.nomecc.org](http://www.nomecc.org)

**프로그램/선교:** 가족 봉사, 약물 중독, 청소년 지도력 개발  
음식, 연장자 봉사, 주택

[www.nomecc.org/about-us.html](http://www.nomecc.org/about-us.html)



레드 버드 선교연회: [www.redbirdconference.org](http://www.redbirdconference.org)

**1. 헨더슨 정착촌(Henderson Settlement)**

P.O. Box 205, Frakes, KY 40940-0205

총무 마크 디 레몬스(Mark D. Lemons), [execdir@hsumc.org](mailto:execdir@hsumc.org)

전화: 606-337-3613 - 팩스: 606-337-2225

**[www.hendersonsettlement.com](http://www.hendersonsettlement.com)**

**프로그램/선교:** 음식, 연장자 봉사, 의복, 성인 교육,  
건강 검진, 아가방, 여름 캠프, 주택

**[www.hendersonsettlement.com/#](http://www.hendersonsettlement.com/#)**

**2. 레드 버드 선교회(Red Bird Mission)**

70 Queendale Center, Beverly, KY 40913

총무 카리 콜린스(Kari Collins), [kcollins@rbmission.org](mailto:kcollins@rbmission.org)

전화: 606-598-3155 - 팩스: 606-598-3151

**<http://rbmission.org>**

**프로그램/선교:** 문맹아동 퇴치, 건강 검진,  
연장자 서비스, 가족 서비스, 의복 서비스

**<http://rbmission.org/ministries>**

## 부록 F .....

## 노래들



“도키야히 아다차히(Dawk’yahee ahdawtsahee),” *글로벌 프레이즈 1권, 19장*

키오와(Kiowa) 기도노래와 예배에의 초청.

소리나는대로 적기:

도키야히 아다차히

도키야히 아다차히안

도키야히 아다차히안

암도 가도

암키 다 데이

도 안, 아츠안 도 가트타안

뜻 번역: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기도하러 옵니다

당신의 예배처로

이 곤궁한 때에 옵니다

도움을 바라고 옵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기 가사. ©1992 메릴린 호프스트라(Marilyn Hofstra), (촉토 [Choctaw], 치카소[Chickasaw]);

뜻 번역 © 1992 도로시 그레이(Dorothy Gray) (키오와[Kiowa]). 허락을 받아 사용함.

“웨 은데야호(We n’deyaho),” 태어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3장

음악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http://www.youtube.com/watch?v=YhcgX1VHsgk).

고대 체로키어(Cherokee)소리나는 대로 적기:

웨 은데야호

웨 은데야호 웨 은데야호,

웨 은데야, 웨 은데야,

호 호 호 호

헤 야 호, 헤 야후, 야, 야, 야

뜻 번역:

나는 위대한 영의 자녀

나는 위대한 영의 자녀

그렇다!

가사와 음악: 전통적인 체로키 허락을 받아 사용함.

## 저자 소개



쥬디스 피에르-오케슨 박사(Dr. Judith Pierre-Okerson)는 아이티(Haiti) 원주민이고 플로리다 미라마(Miramar)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며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 중 한명으로 섬기고 있다. 피에르-오케슨(Pierre-Okerson)은 교육자이며 선교학교에서 자주 가르친다. 평생 감리교회 여성교회 지도자인 피에르-오케슨(Pierre-Okerson)은 미션 유(Mission u - 전 기독교 선교 학교)의 부학장으로 섬긴다; 그녀는 수양회, 워크숍, 훈련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등을 전국 차원, 연회 차원, 지방회 차원에서 인도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총무로 섬기면서 피에르-오케슨(Pierre-Okerson)은 행정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위원장을 지냈고 총회 세계 선교부의 위원, 구제 위원회(UMCOR) 위원. 종교와 인종 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의 위원을 지냈다. 그녀는 지금은 플로리다 연회 선교와 정의 사역팀(Mission and Justice Ministry Team)에서 섬기면서 동남부 지방회(Southeast District)의 평신도 지도자이자 연회 평신도 사역부(Conference Board of Lay Ministries)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피에르-오케슨(Pierre-Okerson)은 사회학 수료증이 있고 대인 그룹 의사소통(interpersonal and group communications)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있다. 그리고 종교학에서 석사학위, 특별 교육의 석사학위, 교육학의 박사학위가 있다. 그녀는 자폐증이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가르치고 대변하는 일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공립 학교(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s)에서 하고 있다. 피에르-오케슨(Pierre-Okerson)은 현재 디커니스(Deaconess)와 연합감리교회의 국내 선교사(Home Missioner Order) 후보생이다.